

100주년기념교회

사순절 묵상집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사순절 묵상집

사순절 묵상집

2021년 2월 10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디자인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100주년기념교회

사순절 묵상집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고운 모양도 없고

이사야 53:1-9

제1일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성경본문

1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묵상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작점에 있습

니다. 신앙의 느슨한 부분과 망가져가는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영적인 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주전 약 700년 전 이사야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한 마디로 볼품없고 하찮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오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고,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분으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관점의 뿌리는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선입견과 싸우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존재하는 세상의 선입견을 소멸시키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선입견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등 여타의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도

사순절의 묵상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특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선입견을 소멸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선입견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② 그 선입견을 소멸하거나 내려놓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2일

요한복음 3:16-21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성경본문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묵상글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일 2:15)라고도 하시고,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도 말씀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삶을 선택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창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속죄’의 길을 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귄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시대에 ‘믿음’을 이야기하느냐며 잘난척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19절). 주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으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16절에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다시 읽고 묵상해 봅시다.
-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인생다운 삶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3일

요한복음 10:11-18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성경본문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묵상글

‘Give & Take’가 상식인 이 세상에서 주는 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거래하기 때문에 더 받을 일도, 더 주는 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문 속 양떼를 지키는 샅꾼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는 받은 만큼 정해진 약속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식을 뒤엎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이시기에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양이 귀하다 한들 목자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까지 버려가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이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계산적인 사랑 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 앞에 눈과 마음을 엽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주님께 내어드리기 주저하게 만들었던 내 삶의 소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2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22-33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성경본문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묵상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지금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
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묻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

은 그 물음에 대해 예수께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밝혔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그 물음을 던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음에 밝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이려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물음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혹시 아직도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순절 넷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은 물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상질문

- 1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물음을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 2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5일

요한복음 11:1-11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성경본문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यो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묵상글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살던 베

다니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15:1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찾아가야 할 소중한 친구는 누구인지 돌아보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함께 영원히 잠들었을 우리를 깨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❶ 친구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❷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제6일

요한복음 11:17-27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본문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묵상글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여 천천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죽음 앞에 절망과 고통을 느끼며 무력해 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소

망하게 합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잠시 연장 받아 살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할 테지만, 그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허락되어 있었기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죽음과 고난으로 인한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 누군가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 앞에서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여섯째 날을 지내며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주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늘 기억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날까지 끝까지 확신 가운데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까?
- 2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제7일

요한복음 11:35-44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성경본문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 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묵상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친구 나사로를 잃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도 아니며, 죽음 앞에

서 무기력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죽음을 무력화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류를 향한 공훈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냄새 나는 시체와 같았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수족이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싸인 채로, 죽은지도 모르고 헤매던 우리를 살리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아 일주일이 지난 오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죽어 악취를 풍기며 생각과 행동이 죄로 억압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그 결과를 보고 슬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나타나는 사망에 마음 아파하며 죽음을 생명으로 대체하는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셨으니 복음의 능력 안에서 책임감 있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맘껏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주님은 냄새 나고, 눈은 가리워 있고, 몸은 묶여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 2 나는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경본문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묵상글

전도서 1장 15절을 보면 “해 아래 에서의 인생은 구부러져 있고 그것을 옳게 펴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많은 것들이 굽어 있는 것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질병과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굽은 것을 아무리 펴 보려고 노력해도 그 결실

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굵은 것을 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묶임에서 놓임을 원하는 인간의 간절함도 아닙니다. 굵은 것을 펴실 수 있고, 모든 묶임을 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근본적인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해 동안 질병과 사탄에게 고통 받았던 여인이 그 질병에서 놓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인생은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굵은 현실과 운명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여덟 번째 날에 어딘가 굵어 있고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굵어 있고 어두움에 매여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굵어 있는 현실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착각했던 저희에게 진정한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묶여 있는 저희들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회개하오니 돌이켜 주님의 올바름을 바라보며 닮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묶이고 매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내 인생의 굵은 모습과 어두움의 모습들을 주님께 아뢰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 ② 내 인생 속에 닮아가야 할 주님의 올바름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본문

²³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²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²⁵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²⁶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²⁷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²⁸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²⁹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³⁰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묵상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속적인 가치관을 거슬러 가야하는 길이기에 쉽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걸으려고도 하지 않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는 문입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분의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야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좁은 문을 생각해봅니다. 안락하고 화려해 보이는 넓은 문이 아니라, 때로는 참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나의 삶 속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 2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10일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4:1-6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성경본문

¹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²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³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⁵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⁶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묵상글

나를 공홀히 여겨 고난당하신 주님께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공홀히 여길 줄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 말씀의 참된 정신인 사람을 공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참 사람으로서 곤고한 인생을 공홀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율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바리새인은 인생의 결이 무척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겠습니까? 맹목적이고 경직된 그들의 계명 이해에는 진정

답아야 할 공홀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병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전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으셨던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

자기 백성을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어 나를 공홀히 여기셨듯이 다른 이들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과 발로 그 뜻을 전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상질문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의 배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② 나의 내면에는 사람을 공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충분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누가복음 14:15-24

제11일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경본문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래로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묵상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초대에 감격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히 사양하나 그 속마음은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거리와 골목을 서성이며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실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주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 삼으셨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참여한다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에 해야 할 일들로 인해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을 맛보지 못한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우선적인 일이 있습니까?
- ②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나에게 감격과 기쁨이 됩니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12일

누가복음 14:25-35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성경본문

25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묵상글

예수님은 무리를 통치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보

이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쓸 데 없어 버려지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제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청에 있어, 건축과 전쟁의 비유를 통해 무리들로 하여금 심사숙고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제자 된 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며, 고통이 따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 데 없어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며 머지않아 버려질 무리 가운데 한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무리 가운데 제자를 구별하시는 말씀을 살피며, 삶을 자리를 점검해 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있는지, 제자로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리 가운데 한사람으로 머물고 있었다면, 속히 돌이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 ·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❶ 주님께서 무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❷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13일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누가복음 15:1-7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성경본문

¹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²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³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⁵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⁶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⁷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묵상글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그 한 명을 다시 찾게 됨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99명의 의인보다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그분의 제자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무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은 누구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며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바 되었던 저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 2 세상을 향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제14일

누가복음 15:8-10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경본문

8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
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
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묵상글

오늘 본문에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당시 가난한 남편이 결
혼하면서 아내에게 선물로 열 드라크마를 주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징표
이기도 하며 혹시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먼저 죽게 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
면 사용하라고 주는 일종의 보험금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한 드라크마가
일꾼의 하루 품삯임을 계산해보면 한 드라크마는 최소 50,000원 이상의 금액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게는 그 값이 문제가 아니
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며 사랑의 징표로 준 은전을 잃어버린 것은 마치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가옥의 울퉁
불퉁한 굴곡진 바닥을 쓸면서 그 은전을 찾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값은 한 드라크마의 비용

을 넘게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그 드라마의 가치가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는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작디작은 은전 같은 우리를 찾기 위에 밑바닥 같은 이 땅까지 오셔서 숨어있던 우리를 기어코 발견하고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주님 품에 회복되었을 때 기뻐하시며 천국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발견된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며 나누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두움의 인생 밑바닥을 걸어가며 숨겨져 있던 우리 인생을 찾아와 발견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필코 찾아내고야 마신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나를 찾기 위해 애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과정을 묵상해봅시다.
- ② 나를 찾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위에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제15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누가복음 15:11-19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경본문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묵상글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 자기행복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무례하게 유산을 받아 모든 것을 처분하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탕진하였고, 곧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치기가 되어 쥐엄 열매로 주린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아

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보았고, 그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은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결국 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라는 그릇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은총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 하루를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둔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에 새로운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라 스스로를 속이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고통과 슬픔, 불안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련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해봅시다.
- ②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할까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성경본문

²⁶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²⁷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²⁸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²⁹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³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³¹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³²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묵상글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며 기뻐하는 데 비해, 큰 아들은 동생의 귀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비판하며 멸시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수고한 것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옳은 소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소리, 관용의 소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옳은 소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긍휼의 소리, 관용의 소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란 열왕기상 3:9과 4:29절에 보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은 <경청>이며, 넓은 마음은 <관용과 포용>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아들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담긴 긍휼과 포용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제가 품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포용과 관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❶ 평소 사랑과 긍휼보다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❷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어봅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17일

누가복음 16:9-13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성경본문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묵상글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2절)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삶으로 기록해 왔던 장부를 하나님 앞에서 펴야 할 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변명하지 않고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앞날을 궁리했습니다. 그는 곧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후에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가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를 나무라지는커녕 지혜 있게 행동한 것에 대해 칭찬하였습니다.

니다. 그 청지기기가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준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도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독백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을 소망하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구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낌없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 2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 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제18일

누가복음 16:23-31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성경본문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여겼던 바리새인들(14, 15절)에게 '부

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 속 부자가 음부로 떨어진 이유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믿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재물과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욱 귀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더 신뢰했던 나의 자량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 ② 내 주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제19일

누가복음 17:1-4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성경본문

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²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땃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³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⁴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묵상글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오히려 벌을 가중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일곱 번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횡수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이루신 용서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의 죽음과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그를 위한 죽음이 아닌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만큼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 받았으

므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쉬이 그러지 못하며 망설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누리며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공허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 ②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성경본문

⁵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⁶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⁷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⁸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두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⁹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¹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묵상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임을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빛진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빚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함

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빗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돌아보는 사순절 2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위한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빗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처럼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 2 늘 빗진 자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21일

누가복음 17:11-19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성경본문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묵상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센병 환자 열 명을 만나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을 것이며 스스로 동병상련하며 함께 지내고 있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시 한센병 환자의 회복을 제사장에게 보여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신 대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였고, 그 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 밖에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임을 볼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반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절박하게 나아가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 삶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었음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사마리아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 2 주님의 구원을 늘 잊지 않고 계속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22일

누가복음 17:20-30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성경본문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 또 룖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룖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묵상글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특정한 날짜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루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도 받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영원한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인자의 오실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대에 너무 잘 정착하고 너무 잘 적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잘 견디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나는 예수님을 따라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2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제23일

누가복음 18:1-8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성경본문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묵상글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과부가 끈질긴 간구와 청원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궁

홀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낙심되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에게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소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죄악과 무지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부처럼 연약한 저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조차도 외면치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굳건한 믿음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내 인생의 억울함을 주님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뢰고 있습니까?
- 2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직한 재판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24일

누가복음 18:9-14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성경본문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
 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
 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
 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
 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묵상글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비유
 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자랑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금식과 십일조로 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자랑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됄을 고
 백하는 모습이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

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 됨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고 또한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SNS와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진심으로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버려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겸손함으로 오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사순절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를 지으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종교적인 열심만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더욱 겸손히 믿고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SNS에서 소통 할 때 '자기 자랑'을 잘 포장하여 나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소통 할 때는 없습니까?
- ② 내가 온전히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이를 금하지 말라

제25일

누가복음 18:15-17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성경본문

15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묵상글

고대 세계에서 어린이는 매우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오히려 환대해주시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자”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주변부의 사람들입니다. 효용 가치가 없어 오히려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성가신 존재로 인식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김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김 받았습니까? 주님 외에는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맹신하지 않으며, 전적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통해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자세가 나에게 있

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님처럼 나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기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어린이의 하나님. 내 것 의지하는 분주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작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상질문

- 1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 2 나는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 3 나는 “작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18-27

제26일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성경본문

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
 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
 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
 를 따르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묵상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생명 삼으며 그
 분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근심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과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자량이 아닌 감사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를 내려놓기까지 나의 발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온 마음 다해 인정하며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따르는 하루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주님, 아직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아 주님 앞에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며 발길을 돌리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물 질에 나의 생명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아닌,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 2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바뀌어야 할 발걸음(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성경본문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십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
 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
 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
 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묵상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비유를 통해 전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의 품삯을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십일시(오후5시)에, 제구시(오후3시)에, 제육시(정오)에, 제삼시(오전9시)에 온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이들이 원망을 쏟아내자, 주인은 아침에 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전해진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결과(은혜)로 주어진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작게 여기고, 자신의 공로는 크게 여기는 아둔한 저희를 흔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에 쥔 한 데나리온은, 결코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닌, 약속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루 하루를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들과 함께 삶을 예배로 만들어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들의 마음에 자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 2 만일 오후 5시(제십일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우리 가족 중의 한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찬송가

149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성경본문

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 인자가 이방인
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33 그들은 채
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 제자들이 이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
를 알지 못하였더라

묵상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넘겨지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과 마침내는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이르셨
으나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에 아직은 그들에게 나타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님께서서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
다.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셨건만, 우리는 그저 예
수님으로 인해 받을 영광만을 기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영광
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어 우리에게 섬김의 모

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며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십시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건만, 저희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받을 영광만을 쟁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마음을 허락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주님으로 인해 받을 영광만을 기대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2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성경본문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묵상글

세배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을 앉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아직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에 휩싸여 예수님이 가셨던 섬김과 희생의 길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일 때가 많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내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힘 있는 자가 다른 이들을 힘으로 부리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더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걸어갈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에 따라 걸어가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돌아보며 가장 높은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기도

하나님, 끝을 모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주인 잃은 풍선처럼 우리의 욕망은 더 높은 곳에 이르고자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터져버릴 풍선처럼 욕망의 끝은 파멸과 한숨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허탄한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 부족한 삶이지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까,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까?
- ②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헌신의 자리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30일

마가복음 10:46-52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본문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묵상글

아픈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는 공허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책임과 사랑으로 아픈 자녀의 옆을 지키고 그 아픔에서 회복될 때까지 마음의 짐을 벗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중요한 여행길이었음에도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바디매오의 외침을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게 된 그의 모습을 보실 때 바디매오를 공허히 여기는 마

음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디매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형상과 관계와 환경이 아닌 죄로 인해 망가진 형상, 관계, 환경으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바디매오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관계, 환경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모습, 삶, 환경을 봅니다. 어둠속에서 자신의 눈을 고쳐 달라고 소리쳤던 바디매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결핍과 망가진 것들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 2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제31일

누가복음 19:1-10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성경본문

¹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²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³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⁵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⁶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⁷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⁸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¹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묵상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만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작은 키와 많은 군중이었습니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난관들을 뚫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 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

고 싶어 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과 삭개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호기심과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은 그 열망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흥미와 쾌락을 만족시켜 줄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순수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망에 응답하셨지만 헤롯의 열망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싶을 때, 그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 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다면,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려는 순전한 열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분별해봅시다.
- ②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변화된 부분(언행)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경본문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묵상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서 왕도(王都)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11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다윗의 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주실 것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롬14: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므나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맡겨주신 것에 충성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안정을 얻기를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맡겨주신 므나에 충성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칭찬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맡겨주신 므나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였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17절)?
- ② 하나님께 칭찬 받는 종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33일

요한복음 12:1-8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경본문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묵상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들뜬 잔치 속에서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조용히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던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로 전해졌습니다(마 26:13). 반면에 불순한 동기를 가졌던 가롯 유다는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비교하며 예

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을 질타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계산적인 헌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그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

사랑의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내신 주님의 헌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용기 내어 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나만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 2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 속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34일

누가복음 19:28-40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성경본문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36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겂옷을 길에 퍼더라 37 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묵상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은 겂옷을 퍼 만든

왕의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겹옷을 카펫처럼 밟고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성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입성했지만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셨을까요? 나귀새끼는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하며 그에게 우리 삶을 내어 드리겠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대속제물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의 환호와 찬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허공의 소리입니다.

기도

주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왕의 행진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가실 그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의 길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희의 무뎠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① 사람들은 겹옷을 펼쳐 놓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길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 ②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제35일

누가복음 19:45-48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성경본문

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묵상글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성전 안,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지방에서 온 예배자들이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소와 바꾼 성전화폐로 비둘기, 양, 기름, 소금 등의 제사용 짐승과 기타 물품을 살 수 있는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매매 활동은 성전 경내 뿐만 아니라 감람 산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겨난 성전 내의 시장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본래대로 모든 사람이 나아와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하도록 성전을 회

복사키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집을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매매 활동에 찬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 보다는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꾀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도리어 범죄의 기회로 삼는 우둔함은 악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악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예수님이 성전을 대하는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이 되십시오.

기도

사랑의 하나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여, 주님을 목적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자기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탐욕에 젖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이 나아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❶ 편리함과 실용성만 추구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 ❷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성경본문

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3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5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묵상글

율법과 구약성경에 능통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며 궁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까 두려워하여 빨리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가롯유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그를 죽음에 넘기는 일에 이용당하고 만 것입니다. 무언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실망과 좌절의 마음이 있었는지 유다는 결국 배반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하거나 중도에 하차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

하며 신앙의 완주를 위해 복음의 근본, 은혜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길을 걸어아하겠습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가롯 유다와 같이 사탄에게 걸려 넘어져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복음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흔들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2 유혹 많고 고난이 있는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3 가롯 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십니까?

제37일

그 하신 말씀대로

누가복음 22:7-13

찬송가

343 시험받을 때에

성경본문

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르니라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묵상글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주의 깊게 준비하셨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식사 장소를 눈치 채고 그 시간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며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남자라면 보통 들고 다니지 않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몸소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길을 준비하셨고, 걸어가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여 그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두시고도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유월절 식사 자리까지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까? 나의 삶에서 주님이 빈틈없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 2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경본문

³⁹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⁴⁰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⁴¹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⁴²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⁴³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⁴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⁴⁵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⁴⁶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묵상글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얼마 후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물려오는 두려움조차 그 상황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힘든 모습을 누가복음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힘마저도 당신의 안위를 위하여 쓰시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상

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더 기도하기 위하여 힘을 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간절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힘은 더욱 더 기도에 매진 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순절 38일을 맞이한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만 더욱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세상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께 구하는 힘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거나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간구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나의 삶만을 위한 우리의 이기적인 간구를 주님께 솔직히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의 힘을 공급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간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 2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나를 주님께 더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에 더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성경본문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묵상글

로마 군병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양 옆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 차례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무기력해 보입니다. 백성의 구원자로 소문났던 분이 자기 자신의 몸은 전혀 방어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은 살리지만 자신은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세상을 떠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죽일 수 있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질문

- 1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지금 나에게 달라진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2 내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과 같은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제40일

마태복음 27:57-66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성경본문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묵상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장례를 치를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압박에 가까운 요청으로 사형을 집행했고, 게다가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에게나 적용하던 십자가형으로 집

행했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장례를 대신 치러줄 수도 없고, 무덤을 내어 주기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장사지낼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때 부자였고, 유대 사회 내에서도 명망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지내기 위해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장사지낸 적이 없었던 자신을 위해 마련했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이목을 받기 두려워하고, 목숨의 염려 때문에 도망갈 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요셉은 “제자”였습니다(57절). 진정한 제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실 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기꺼이 나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있으니까? 오늘도 세상 도처에서, 내 삶의 주변부에서 주님의 손과 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참 제자답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호의호식을 추구하지 않으며,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상질문

- 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② 내가 진정한 제자라면, 오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